

레진 인공치의 깊이에 따른 경도 분석

하상현*, 신상완, 임호남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치과 보철과 / 경희치대 치과 재료학 교실

무치악 환자의 의치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주로 resin teeth나 porcelain teeth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레진치는 좀 더 자연스럽게 파절이 적으며 clicking이 없고 교합조정이 유리하며 polishing, recontouring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좀더 강화된 형태로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다.

Porcelain teeth에 비해 resin teeth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합조정이나 recotouring의 용이성인데, 이는 구강내 여러 가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좌된다. 이들은 특히 외적인 요소인 레진치 자체의 경도와 마모도에 주로 의존되는 데, 이러한 경도와 마모도는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치의 경우, 수직고경의 유지, occlusal prematurities 및 centric occlusion시의 maximum intercuspitation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서는 전후방 치조골의 흡수, 의치의 안정성과 유지에 깊이 관여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인공 레진치를 이용하여 층별(내면과 외면)의 경도를 측정함으로써 denture teeth의 교합조정 및 recontouring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사용된 인공치로는 SR-Orthosit-PE(Ivoclar, Liechtenstein), ENDURA POSTERIO(Shofu Inc, Japan), Biotone(Trubyte, Densply)의 3가지 제품, 각각 구치부 5개씩을 선택하였다.

시편은 인공치를 협설로 section하여 층별(내면/외면)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여 치아의 외,내층의 경도를 비교, 분석하였다.